

우리 소리 미래, 전주세계소리축제 얼굴 되다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주역 5인, 홍보대사 위촉... 사진 홍보 · SNS · 현장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역할 수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가 우리 소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판소리 소리꾼 5인을 2026 소리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로 위촉된 소리꾼은 소장, 최광균, 이수현, 고향돌, 박시분 등 5명이다. 이들은 올해 소리축제 프로그램인 '젊은판소리 다섯바탕' 공모를 통해 최종 선발됐으며 올 한 해 소리축제를 대표하는 얼굴로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소장(전주)과 최광균(남원)은 전북 출신 소리꾼으로 판소리의 본고장 전북에서 성장한 차세대 예술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홍보대사 최광균은 개인 해외 일정으로 인해 이날 위촉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가 우리 소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판소리 소리꾼 5인을 2026 소리축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소리축제는 올해 25화차를 맞아 '소리의 숨결, 모아 판으로'를 주제로 개최되는 만큼, 전통예술의 미래를 상징하는 젊은 소리꾼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축제의 가치와 비전을 보다 널리 알릴 계획이다. 특히 이번 위촉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 차세대 예술인들의 성장과 전통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응원하고, 미래세대와 전통예술을 잇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보대사들은 축제 홍보영상과 SNS 콘텐츠 제작, 공식 홍보물 활용, 언론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 활동에 참여하며 소리축제의 매력을

국내외에 알릴 예정이다. 축제 기간에는 젊은 판소리 공연을 비롯해 개·폐막 기자회견, 개·폐막식 등 주요 공식 행사에 참여하며 관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판소리의 깊이와 전통예술의 가치를 전하는 문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철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홍보대사로 위촉된 젊은 소리꾼들은 우리 전통예술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들이 관객

과 축제를 잇는 가교 역할로써 소리축제와 판소리, 전통예술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관객층과 만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6 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및 전북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되며, 판소리를 비롯한 다양한 전통예술과 월드뮤직,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370여점 기록물로 시민 삶·추억 조명

'김제, 기억의 조각을 잇다' 전시회 개최

김제시는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스마트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김제, 기억의 조각을 잇다' 전시회가 지평선 복합어울림 창업지원센터(동서로 173)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이며, 오는 16일 오후 4시에는 마을기업 현판식과 함께 전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에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전시 형태로 운영된다.

이번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요촌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기록활동가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사진과 기록물을 수집하고, 그 속에 담긴 삶의 이야기를 함께 기록하는 주민 참여형 아가



당시 사용했던 생활용품과 상장, 휴대전화 등 실물 기록물을 전시해 시대의 변화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디지털화한 사진으로 제작한 영상 콘텐츠도 함께 상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김제의 기억과 역사를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시, 16일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 개최

남원시(시장 양충모)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강면 소재 대강면 행복문화센터(섬진로 851)에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결제가 가능한 '찾아가는 문화예술장터'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수혜자 중 거주지 주변에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이 없어 카드 사용에 곤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가맹점 측에서 직접 취급 상품을 해당 읍면동 소재지 방문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며, 이번 장터에서는 생활 한복 및 스카프 등 의류, 도자 식기 및 도마 등 주방용품, 가방 및 지압봉 등 체육 및 캠핑용품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한다.

또한 통합문화이용권 소지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인근 순창군, 구례군 등 다른 지역 주민들도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다.

다만,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결제하고자 할 경우, 실물 카드를 지참하여야 하며, 분실 시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분실 신고 및 카드 재발급 요청을 하여야 하고, 현장에서 품질 물품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현장 결제 이후



택배 배송으로 물품 수령이 가능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장터를 통해 수혜자 여러분이 통합문화이용권을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하며, 모든 시민 여러분이 문화생활을 금전적·지리적 고민 없이 누릴 수 있는 남원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군산어린이공연장, 25일 어린이 창작뮤지컬 '깃털피리' 공연

군산어린이공연장이 여름방학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 창작뮤지컬 '깃털피리'를 오는 25일 선보인다.

'깃털피리'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긴장하는 너구리가 신비한 하늘새의 깃털을 찾아 떠나는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정을 통해 자신감과 용기, 우정의 소중함을 전하는 가족 뮤지컬이다. 뮤지컬과 인형극, 영상이 어우러진 복합극 형식으로 구성되어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개성 넘치는 동물 캐릭터와 신나는 음악,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을 믿는 마음과 친구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공연예술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객들의 호응이 기대된다.

공연은 7월 25일 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예매는 7월 1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1인당 최대 4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익산예술의전당, 8월 8일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 창작뮤지컬 개최

고조선과 마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한(韓)'의 역사를 그려낸 창작 뮤지컬이 익산 시민들을 찾아온다.

익산예술의전당은 오는 8월 8일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대표 이도현)'의 창작뮤지컬 '한왕! 바람, 노래가 되다'를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2026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작으로, 지난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을 한층 보완해 다시 선보인다.

합창곡을 포함한 신곡 5곡을 추가하고 마한의 장로 덕지를 중심으로 한 갈등 구조를 강화해 고조선과 마한의 화합 과정을 더욱 입체적으로 담아냈다.

뮤지컬은 기원전 194년 위만의 반란으로 왕검성을 떠난 고조선의 마지막 왕 준왕이 남하해 마한에 정착하는 과정을 배경으로 한다.

준왕은 마한의 군장 불사와 갈등을 겪지만 평화를 선택하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고조선과 마한은 음식과 노래, 춤을 통해 화합하고, 마한 청년 모루와 조선의 예인 아리의 사랑은 두 공동체의 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후 권력과 욕망에 사로잡힌 마한의 장로 덕지로 인해 위기가 찾아오지만, 준왕과 불사는



힘을 모아 이를 극복한다. 작품은 조선과 마한의 문화가 융합돼 새로운 '한(韓)'의 역사가 시작되는 과정을 그리며, 오늘날 익산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상상력을 무대 위에 펼쳐낸다.

익산 공연 표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예매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전석 1만 원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